

지난해 6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소녀시대' '슈퍼주니어'가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 콘서트 티켓이 발매 15분 만에 매진되면서 한류열풍의 위력을 느끼게 했다. 같은 해 7월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K-pop 콘서트 현장이 아니었다. 불교의식의 하나인 영산재였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열린 영산재 공연은 예루살렘 대극장, 헤자리아 대극장, 텔아비브 오페라하우스 등 모든 공연의 관람석이 매진됐다. 한류 열풍이 오직 K-pop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은정 기자 seoj84@hyunbui.com



서울 봉은사에서 외국인들이 사찰음식 시연에 참가하며 '원더풀'을 연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스라엘을 뜨겁게 달군 영산재 공연 모습. 당시 예루살렘 대극장 등 여러 극장서 열린 공연은 매진상태를 이뤘으며, 이런 열기에 힘입어 이스라엘은 재공연을 요청해 놓고 있다.

한국불교 문화는 영혼의 고향 '원더풀' 갈채

K-pop만 한류인가... 불교문화도 한류 열풍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한국 문화 5선년 세계 순회전에서 갈채를 받았다.

K-pop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문화 역시 새로운 한류(韓流) 바람이 거세다. 한국불교가 선(禪) 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문화로 외국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7월 이스라엘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영산재'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스라엘 오페라극장서 열린 제24회 카미엘 국제무용제에 참가한 태고종 한국영산재보존회 팀은 2만 5000여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관객들은 기립박수에 앙코르 공연까지 요청했다. 단 90분의 공연이 이스라엘

국민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빠트린 것이다.

당시 공연을 총괄한 법현 스님(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은 영산재 춤 중 가장 화려한 동작만을 갈라 형식으로 뽑아 빠른 템포로 구성했다. 음악과 무용이 빠르게 전환하며 화려함까지 선보여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기존 영산재를 현지인들의 기호에 맞게 약간 각색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공 요인이었다. 이런 열기에 힘입어 현재 이스라엘은 '영산재' 재공연을 요청한 상황이다.

영산재 공연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럽, 중남미 국가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법현 스님은 영산재 해외 포교에 있어서는 선두주자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52개국에서 수 백회에 달하는 공연을 진행해왔다.

법현 스님은 "불교문화는 한국 전통 문화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를 보고 느끼고 싶어하는데 한국불교문화가 바로 그 트렌드에 적합해서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법현 스님은 7월 러시아와 마카오 공연도 예정 중이다. 또 8월에는 부탄 문화예술보존협력 단체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영산재가 외국인들에게 각광받고 있음에도 해외공연 진행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한 차례의 해외 공연을 위

해서는 각종 경비가 많이 드는데 태고종 영산재 공연팀의 재정규모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영산재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지만, 정부 보조금이 거의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영산재보존회 회장 일운 스님은 "정부보조는 해외 공연시 전승교수, 이수자, 보유자에 한해서 비행기표 정도만 이뤄진다. 정부보조가 극히 부분적이다 보니 의상제작비, 공연도구 등의 마련에 재정적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영산재는 불교한류의 국가 대표 공연·교육시설 등 정부지원 절실

문화체육관광부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지난 2008년 10월 8일부터 2009년 2월 말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규모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페스티벌은 각종 공연과 불교예술 문화제 전시로 구성된 5개월에 걸쳐 전시됐다. 당시 대규모 전시가 장기적으로 열리는 일은 이례적이어서 개막전부터 유럽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페스티벌 중 '부처의 미소'를 주제로 열린 전시회장은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전시돼 유럽인들

에 큰 주목을 받았다. 벨기에 왕위계승 서열 1위인 필립 왕세자, 마티드 왕세자비 부부는 직접 불교예술 전시회장을 찾아 한국 불교예술에 대한 독특함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문화재단이 지난 3월 30일 연등회를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한 데 이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신청한 것도 국내외에 큰 관심이 됐다. 만일 등재가 된다면 명실공히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사찰세계유산추진전문가협의회(회장 이배용)는 지난해 4월부터 불교, 역사, 문화재, 건축 전문가들과 함께 전통사찰 세계문화유산 등재 작업을 하고 있다.

전통사찰세계유산추진전문가협의회 위원인 이상해 성균관대 교수는 "한 국가의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면 국민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자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되고, 해당 유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불교문화는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불러들이는 데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대장경 천년의 해를 맞아 경남 함천군과 해인사 등지에서 열린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이 좋은 예이다. 당시 행사에는 외국인 8만여 명이나 다녀갔다. 특히 KBS1-TV는 총 4부작 대장경 천년특집 다큐멘터리 '다르마'를 제작해 해외에서 큰 호평을 받았으며 대만에 관한 계약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르

마'는 5월 29일 태국 방콕서 개최된 AIBD(아시아태평양 방송개발기구)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밖에 사찰음식도 웰빙 문화가 확산되면서 한국의 대표적 한류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 해 9월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불교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한국불교문화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2010년에는 미국 뉴욕에서 '한국 사찰 음식의 날' 행사를 개최해 사찰음식 세계화에 주력하고 있다.

반가사유상에 세계인 시선집중 '다르마'... AIBD 다큐부문 수상 사찰음식 외국인들에게 큰 인기

남방불교는 탁발 전통이 강해 사찰음식이 없고, 중국도 참선 수행이 없어지면서 사찰음식이 사라졌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찰음식은 한국불교의 새 불교문화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다. 매주 수, 목, 금요일 서울 전곡비구니회관에서 사찰음식 요리를 강의하는 사찰음식연구회 조계종 스님의 강의에 외국인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또한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의 단기 여름학기 수업에도 선재 스님의 사찰 음식 강의와 체험이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는데 특히 매년 방문하는 독일 슈타인바이스

대 대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다.

선재 스님은 "자연에서 모든 재료를 구하고 조리법도 단순한 사찰음식이야 말로 인종, 국가, 종교를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는 음식"이라며 "간강에도 큰 도움이 되며 조리법도 비교적 단순해 세계화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음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외국인들에 대한 사찰음식의 인기는 서울 견지동에 위치한 사찰음식 전문점 '바루'에 가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손님들의 3분의 1 이상이 외국인 마니아 고객들이다. 호주와 뉴질랜드 대사는 1주일에 한 번 꼴로 이곳을 방문할 만큼 단골 고객이 됐다.

이런 점에서 대안 스님은 사찰음식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찰음식 세계화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이다. 그중 한 예가 외국인들이 사찰음식과 한식을 혼동한다거나, 사찰음식의 의미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사찰음식연구회장 적문 스님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사찰음식은 빼놓을 수 없는 장르"라며 "조계종단과 한식세계화추진단이 공동으로 레시피의 계량화 등 사찰음식과 한식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정사 금모선원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 대선사

주 지 지 성
명예회장 서석인
신도회장 정대원행
사부대중일동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410번지 Tel)051-746-2256 / www.seon.or.kr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대한불교천태종 동해 관음성지

울릉해도사

주 지 정비룡

남양성인사 래하삼도사
신도회장 도영국외 신도회장 김도근외

신도일동

경북 울릉읍 도동 584-6
TEL 054)791-2471